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지표 개발

원 영 실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김 은 경

승실대학교

영재교육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담당교사는 영재성 판별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선행구비 조건이다. 따라서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가 지녀야 할 지표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연구는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가 지녀야 할 자격 조건을 탐색하고, 그 특성을 바탕으로 평가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예술영재의 선별 및 판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좋은 교사 및 영재담당교사,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의 자격 조건과 관련된 다양한 문헌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고, 각 문헌에 제시된 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나아가 개발된 평가지표의 학문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25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투입하였다. 연구 결과,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의 평가지표는 3개의 대영역과 8개의 중영역, 18개의 소영역으로 최종 구성되었다.

주제어: 음악영재 담당교사, 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지표

I. 서 론

우리나라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사관찰추천제는 영재성 선별의 권한을 추정 영재의 담당교사에게 부여한 방식이다. 영재판별 분석 연구의 결과, 영재성 선별 및 판별에 관한 교사의 관찰추천 예측률은 70-80%의 적중률을 보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11). 또한 추정 영재의 부모가 놓칠 수 있는 예술영재성을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선별할 수 있는 존재가 교사라는 점(원영실, 2011, 2013)을 고려해 볼 때,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로서의 최적 조건 및 전문적인 기량을 갖춘 교사는 영재성 판별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선행적으로 구비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누구를 음악(국악)영재로 판별하고 무엇을 교육시킬 것인지’의 문제와 더불어 더욱 시급하게 연구되어야 할 주제는 ‘그러한 음악

교신저자: 김은경(ekim@ssu.ac.kr)

* 이 논문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2013)로 수행된 ‘예술영재 교사자격 평가문항(SSQT) 개발’의 일부분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재구성하였음.

(국악)영재를 누가 판별하고 교육시킬 것인가'의 부분이다. 음악(국악)영재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고 본인 스스로 담당교사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해당 영재교육을 담당할 수는 없다. 최적의 자격 조건을 갖춘 교사가 음악(국악)영재에 대한 타당한 선별 및 판별, 교육과정 운영, 영재교육 전반에 대한 최종 평가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의 수준을 보고해주는 평가지표의 설정이 이렇듯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영재교육 연구에서 음악(국악)을 포함한 예술영재 교사변인 관련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 더욱 확대되고 있는 예술영재 교사관찰추천 선별 현황을 고려해 볼 때,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의 평가지표 개발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음악(국악)영재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당 영재를 선별할 수 있는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의 평가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최적 조건의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를 가려냄과 동시에 음악(국악)영재의 선별 및 판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을 구성하는 것에 있다. 나아가 평가지표의 투입을 통하여 해당 교사가 현재 지니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과 그 수준을 알려줌과 동시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영재담당교사로서의 자격을 교사 스스로 평가하고 부족한 역량에 대한 부분을 보충해나가도록 도움을 주는 것에 있다.

유능한 교사에 관한 교육심리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 분야에 대한 탁월한 지식, 학급운영기술, 교사적성'이 해당 조건으로 드러났다(신명희 외, 2014). 그렇다면 상기의 요인을 기본 조건으로 하고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 교사가 될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가 지녀야 할 탁월한 지식은 무엇이며 학급운영기술 및 교사적성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의문이 남는다.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의 평가지표 마련은 이에 대한 답변을 가능케 할 것이며,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내 예술영재교사 직무 기초 및 심화연수 대상자의 선발, 예술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 투입교사 평가를 위한 지표 설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예술영재교사의 자격 조건 탐색 연구(원영실 외, 2012)가 수행되었으나 이 연구는 국내의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의 자격 관련 법 규정 및 다면적인 자료를 고찰함으로써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가 지녀야 할 특성을 탐색하는데에 그쳤다. 따라서 실제 예술영재교육 현장에 투입 가능한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를 가려내고 그 자격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수렴된 특성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평가지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예술영재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의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데에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좋은 교사의 특성

좋은 교사의 특성에 관한 다양한 논의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요인은 교사전문성이 다. 교사전문성이란 교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학교라는 환경 속에서 학습자의 지적 향상과 바람직한 인성 발달이 성취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 능

력을 의미한다(김아영, 2012). 업무수행에 있어서 고도의 지적, 기술적 수월성을 전제로 하는 교사전문성의 개념은 우수한 교사에 대한 정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교사의 인지적 능력이 교사전문성의 핵심 역량인 것처럼 보이지만, 교사가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의적 특성 또한 함께 갖추어야 한다.

김이경 외(2004)는 교사평가 시스템 연구를 통해 교사전문성을 ‘교사가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자질, 능력, 지식, 기술, 태도, 가치관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및 지적 수월성과 교사로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인하는 심층적 특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천은수(2009)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르치기 위한 지식’을 생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다면적 요인을 제시하면서 교사의 신념이나 교사성향이 교사역할을 수행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오옥환(2005)은 교사전문성을 ‘열정’과 동일시하면서 이러한 열정이 전문성과 별개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교사전문성을 단지 교과지식의 측면에 국한시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재호와 최미정(2011)은 좋은 교사가 지녀야 할 특성을 네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교직에 대한 태도로, 교직사명감, 교직에 대한 헌신, 교육에 대한 열정 등의 속성을 의미하며, 둘째는 교직에 대한 전문성으로, 해당 교과에 대한 연구, 전문단체 활동, 자율성 등의 특성을 포함한다. 셋째는 교사의 지위로, 교사에 대한 존경, 안정성, 신분의 특징을 의미하며, 넷째는 교사의 자질로, 인성, 수업방법, 기술, 체력 등의 속성을 포함한다. 김옥예(2006)는 기존의 지식, 기술, 신념에 대한 교사전문성을 새롭게 조명하여 개념 구조를 제안하였다. 지식기반 전문성은 교과 지식, 일반 교육학적 지식, 교육과정 지식 등을 의미하며, 신념기반 전문성은 교사의 태도, 가치관, 헌신, 교육에, 자기반성 등을 뜻하고, 기술기반 전문성은 학급경영, 학생지도, 수업의 실제적인 실행과 이에 대한 노하우를 의미한다. 잠재된 전문성은 지식, 신념, 기술 중 하나의 기반요소가 미처 발현되지 못하고 잠재되어 있는 상태이며, 참된 전문성은 교사의 축적된 지식, 신념, 기술이 종합적으로 발휘되는 속성을 의미한다.

김아영(2012)은 교사전문성을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의 세 차원으로 구분하고, 세부 구인에 대한 수렴적 논의를 전개하였다. 예컨대 교사가 지닌 교과 및 전공 관련 지식, 교수 및 수업방법 관련 지식을 포함하는 학문적 능력의 지식기반 전문성은 인지적 차원의 전문성이고, 교사의 태도 및 가치관, 소명 의식 및 인성 등을 포함하는 신념기반 전문성은 정의적 차원의 전문성이며, 교수기술을 활용하는 수업수행, 학급경영, 학생상담 등의 교수행위를 의미하는 능력기반 전문성은 행동적 차원의 전문성을 의미한다.

Shulman(1987)은 교과에 대한 단순한 지식만으로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유능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용지식(CK: Content Knowledge)을 그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교육학적으로 변환할 수 있는 교육학적 내용지식(PCK: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을 지녀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교육학적 내용지식은 사회, 지역공동체, 학교, 학급, 학습자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재창조되어 쌓이고, 교사는 비슷한 교육적 맥락과 환경에서 그러한 지식을 꺼내어 사용한다. 이러한 맥락과 관련하여 Shulman은 교사의 지식을 ‘교과내용지식, 교육과정지식, 교육학적 내용지식’

의 3가지 측면으로 설명(1986)하다가 이후 ‘일반교수법지식, 학습자에 대한 지식, 교육환경에 대한 지식, 교육목적에 대한 지식’의 4가지 요인을 추가하여 최종 7가지의 측면으로 제시(1987)하였고, 그 중 교육학적 내용지식을 교사전문성의 핵심 요인으로 보았다.

OECD(1998)에 의하면 교사전문성은 훌륭한 교사가 지닌 주요 특성이자 능력이며 사회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구인이다. 나아가 OECD는 교사전문성의 하위 요인으로 ‘전문적 능력(교과내용과 가르치는 방법), 교수방법상의 노하우, 기술(정보통신기술 등)의 이해, 조직에서의 협력, 개방성’ 등의 특성을 포함시켰다. 미국 교사평가 및 지원을 위한 주협력 컨소시엄에서 제시한 훌륭한 교사는 학습자를 잘 이해하고, 교과 관련 지식이 풍부하며, 실제 수업에 대한 계획 및 평가와 교수전략 사용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소유하고, 전문가로서 교사 자신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 노력하고 협력한다(Council of Chief State School Officers, 2011). 영국의 교사전문성 기준을 보면 ‘전문적인 가치 및 실제(professional attributes),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professional knowledge and understanding), 교수(professional skills)’의 3개 영역에 걸쳐 총 33개의 지표가 설정되어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of UK, 2007).

좋은 교사의 자격 조건에 관한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 지적기반인 교과지식 전문성과 실천적 능력 기반인 교육지식 전문성, 신념기반인 교사의 태도 및 적성의 세 가지 측면으로 수렴된다. 교과지식 전문성이란 교과내용지식 혹은 교과수업지식, 해당 교육과정의 개발 등을 의미하며, 교육지식 전문성은 수업방법 및 수업설계를 포함한 수업수행 능력과, 학생생활지도 능력, 학급경영 능력, 학생상담 능력, 정보활용 능력 등의 특성을 의미한다. 교사의 태도 및 적성은 교직에 대한 흥미, 가치화, 신념, 학습자에 대한 사랑과 이해, 관심, 소명의식, 열정, 성취동기, 인간관계기술, 일관성, 중립적 태도, 자기계발 노력, 원만한 품성 등의 속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좋은 교사는 이러한 특성이 어느 한 측면으로 치우치지 않고 세 가지 측면에서 균형을 유지할 때 전문성을 지닌 교사라고 볼 수 있다.

2. 영재담당교사의 특성

조석희 외 여러 전문가(1998)에 의하면, 영재담당교사가 반드시 본인 스스로 영재일 필요는 없지만 특정 학문 영역에 대한 높은 수준의 흥미와 열정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또한 시간 활용 및 교수학습 진행, 교수전략 및 교수자료 선택 등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유머가 있고 영재의 뛰어난 능력에 대한 열등감을 지니지 않은 사람이 영재담당교사로 적합하다고 하였다.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의 습득은 대부분의 교사가 동의한 영재담당교사의 자격 조건이었다(원영실 외, 2012). 특히 예술영재 담당교사의 전문적인 지식 보유는 성공적인 예술영재교육의 산출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백 마디의 말보다 영재담당교사가 직접 실연(實演)으로 보여주는 연주기술이나 표현성, 작품 제작과정 등은 그 자체가 영재에게 높은 수준의 이해와 적용, 영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휘(1996)에 의하면, 영재담당교사는 스스로 영재성을 지녀야 하며 영재교육의 본질, 영재의 특성 및 발달상의 요구, 영재교육과정의 개발 및 적용, 영재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투입할 수 있는 능력, 영재에 대한 열성을 지녀야 한다. 김정휘와 주영숙(1996)은 영재와 영

재담당교사가 비슷한 수준의 영재성 및 특성을 보유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영재담당교사의 필요충분조건으로 ‘해당 분야의 재능 또는 우수한 지능, 영재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감과 동정, 영재의 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용인, 학과에 대한 준비, 다재다능성, 평가적이고 비판적인 동시에 개방적인 태도, 수용성, 자아통찰, 선입견 없이 영재를 인정하는 통찰력, 융통성, 복잡성을 다루는 능력, 창의성, 인내심, 유머 감각, 시간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능률성, 지적 성실성’ 등의 세부 특성을 제시하였다.

박경희와 서혜애(2007)는 영재담당 교사전문성의 구성요소를 ‘지식기반, 능력기반, 상황기반’의 세 가지 전문성으로 구분하였다. 지식기반 전문성은 해당 분야 관련 첨단지식에 대한 이해 및 전공교과 전문지식, 교사의 연구수행 능력을 의미하며, 능력기반 전문성은 영재의 인지적·사회적 특성 이해, 영재 판별 및 선발 방법의 이해, 영재교육 평가방법의 이해, 영재 교수학습 방법 적용, 영재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능력, 영재상담능력 등을 의미한다. 상황기반 전문성은 교사의 주변 환경, 즉, 학교장과 동료 교사, 학부모, 지역 사회에서의 의사소통 및 협력관계, 대인관계 등을 통해 자신의 전문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원을 획득하는 능력이다.

박창언과 서혜애(2010)는 세 가지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영재담당 교원 자격에 관한 법 규정을 검토하였다. 첫째, 영재는 일반 학생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영재담당교사는 영재담당교사와는 다른 특별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둘째, 영재는 그들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이 필요하므로 이를 교육하는 영재담당교사는 영재를 위한 교육과정 및 교수법 관련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관점이며 셋째, 영재교육 대상자는 획일적 기준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문에서 우수한 능력을 지닌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영재교육기관별로 해당 영재담당교사의 자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여기서 영재담당교사의 전문성이란 교과내용적 지식과 교과교육학적 지식, 교육학적 지식의 하위 요인들을 의미한다. 교과내용적 지식은 해당 영역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의미하며, 교과교육학 및 교육학적 지식은 교수학습 방법 및 학습운영과 관련된 지식, 영재담당교사가 지녀야 할 교사적성 및 태도, 동기적 측면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바람직한 영재교사상을 탐색한 이스라엘의 연구 결과(Vidergor & Eilam, 2012)에 의하면,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인지적, 개인적, 교육학적’ 측면에서의 특성이 영재담당교사에게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인지적 특성은 특정 학문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의미하며, 개인적 특성은 교사의 성품, 교육학적 특성은 적절한 교수학습의 처치 능력을 의미한다. 특히 이스라엘의 교사들은 인지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개인적 특성은 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받으므로 영재담당교사의 선발 시 다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미국의 영재담당교사 자격 규정을 보면, ‘영재교육과정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영재를 위한 수업방법 활용능력, 영재성의 이해’를 교사에게 요구한다(Croft, 2003). 특히 영재담당교사는 영재의 개인차, 영재성 발현 및 특성, 영재 판별 및 평가, 영재교육의 철학과 이념, 영재교육과정, 영재교수학습 방법, 영재교육 프로그램 평가, 영재교육의 이슈와 쟁점, 영재교육정책 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Karnes & Stephens, 2008).

영재담당교사의 자격 조건에 관한 학자들의 의견은 다양하지만 전문가들이 제안한 속성

들은 보다 상위의 요인으로 묶일 수 있다. ‘우수한 지능 및 재능, 해당 분야 전문적 지식 및 기술, 전공교과 전문지식 및 첨단지식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 연구수행 능력, 전문지식 적용 능력, 높은 지성과 학식’ 등의 특성은 영재담당교사가 지녀야 할 ‘교과지식 전문성’에 포함된다. 또한 ‘영재교수학습 전략구성 및 운영 능력, 영재성 이해, 영재판별 및 교육과정 이해, 영재상당 능력,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은 ‘교육지식 전문성’에 포함되며, ‘열정, 공감, 개방적 태도, 자아통찰력, 인내심, 유머감각, 인성적 자질, 안정된 성격, 리더십, 책임감, 자기효능감’ 등의 특성은 영재담당교사가 지녀야 할 ‘교사 적성 및 태도’ 구인에 해당된다.

결국 영재담당교사는 해당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능력과 창의성을 포함한 교과지식 전문성과, 교수학습 상황 속에서 해당 영재의 잠재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우수한 교육지식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 나아가 영재담당교사로서의 적성 및 태도, 이를테면 영재에 대한 이해력과 수용성, 공감, 열정, 신뢰성, 일관성 등의 특성을 지녀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은 일반 교사도 지녀야 할 속성이다. 다만, 영재담당교사의 경우 더욱 높은 수준의 교과지식 전문성을 보유하고, 영재성의 이해 및 판별, 영재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등을 포함한 영재교육 관련 교육학적 지식을 알고 적용하며, 영재에 대한 애정 및 열정을 포함한 영재담당교사로서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점이 일반교사와 영재담당교사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3.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의 특성

상기에서 논의한 좋은 교사 및 영재담당교사의 조건은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가 지녀야 할 특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의 자격 조건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음악교사의 자격과 관련된 국내외의 다면적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가 지녀야 할 조건을 수렴하고자 한다.

최미영(2012)은 교사의 직무 영역을 ‘교과지도, 학생생활지도, 특별활동지도, 학급관리 및 직책을 통한 행정업무, 대인관계’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음악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 요인을 탐색하였다. 즉, 음악교과 지도 영역에 대한 구성 요인으로 ‘음악수업 실제와 관련된 수업지도 및 운영, 음악교사 자질(역량) 함량’, 학생생활지도 영역의 구성 요인으로 ‘학생 인성교육, 학생 이해 및 존중’, 음악관련 특별활동 지도 영역의 구성 요인으로 ‘정규 시간 외 음악관련 동아리 및 계발 부서 운영, 음악행사 운영 효능성’, 행정업무 영역의 구성 요인으로 ‘행정업무 관련 활동이나 상호협조에 관한 업무 추진, 문서행정 능력’, 대인관계 영역의 구성 요인으로 ‘자기수양적 조절, 동료교사 간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를 제안하였다.

미국 국가기관인 NCATE, NBPTS, INTASC, NASM에서는 음악교사를 포함한 교사의 전반적인 자격 기준을 제시하였다. 석문주(2008)는 특별히 음악교사와 관련된 기준 영역을 발췌하여 분석하였고, 교사자격의 수렴 과정에서 드러난 음악교사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으로 재분류하였다. 먼저 NCATE(National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Teacher Education)는 ‘철학과 당위성, 교육과정, 수업 전략 및 방법의 이해와 적용, 교생실습, 평가, 수업운영, 전문성 발달’을 교사교육 기준으로 제시하였고, NBPTS(National Board of Professional Teaching Standards)는 ‘음악교사로서의 전문적 지식, 인간 발달과 다양성에 관한 지식, 음악교수법 지

식, 평가 계획과 실행, 자기반성 및 음악교육 발전에 기여' 등을 음악교사 자격 기준으로 제안하였다. INTASC(Interstate New Teacher Assessment and Support Consortium)는 교사에게 필요한 공통적인 자격 기준과 각 교과별 기준을 제시하였다. 우선 10개의 공통 기준은 '지식(knowledge), 성향(disposition), 수행(performance)'의 세 가지 상위 요인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교과목 지식, 학습자 발달, 학습자 다양성, 수업전략, 학습 환경, 수업 계획과 통합, 의사소통, 평가, 자기반성 및 전문가적 발전, 지역사회 참여'이다. 이러한 10개의 지표는 음악 영역과 연관되어 음악교과 영역의 세부 지표로 구성된다. NASM(National Association for Schools of Music)에서는 음악교사의 바람직한 속성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음악적 자질과 교수 능력의 세부 지표를 제안하였다.

최은식(2006)은 미국 교사양성 제도의 새로운 양상을 분석하면서 MTE와 MTNA에 제시된 음악교사의 자격 기준을 탐색하였다. 먼저 미국 음악교육자 협의회(MENC)의 MTE(Music Teacher Education)에서 제시한 음악교사의 자격 기준은 '교수법적 기준, 음악적 기준, 개인의 성격적 기준'의 세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MTNA(Music Teachers National Association)는 '전문성, 전문적 교수 실행, 전문적 경영, 전문적 개인적 개선'의 자격 기준과 그에 따른 상세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전문성의 상세 기준으로 '음악관련 지식과 연주, 학습자 특성 이해', 전문적 교수 실행의 상세 기준으로 '교과과정 계획, 음악학습 촉진, 교육환경 구축, 음악적 성장의 평가', 전문적 경영의 상세 기준으로 '전문성에의 기여, 파트너십의 구축', 전문적 개인적 개선의 상세 기준으로 '전문적 성장의 평가, 평생교육'을 제안하였다.

미국 국가기관에서 제시한 음악교사의 자격 기준을 교과지식 전문성, 교육지식 전문성, 교사 적성 및 태도의 상위 요인으로 재분류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미국 국가기관에서 제시한 음악교사 자격 기준의 영역별 분류

	NCATE	NBPTS	INTASC	NASM	MTE	MTNA
교과지식 전문성	-음악교육 과정 -전문성 발달	-음악적 지식과 기술	-음악교과 관련 지식	-기초자질 (음악 자질)	-음악적 기준	-전문성 준비
교육지식 전문성	-수업관련 지식 -교생실습 -평가관련 지식	-학습자에 대한 지식 -평가 계획과 실행 -음악학습 관리 -학습 환경 -학습자의 다양성 이해	-학습자 발달 이해 -학습자 다양성 이해 -수업 전략 -학습 환경 -수업계획과 통합 -평가	-교사로서 바람직한 속성 -기초 자질 (교수 자질)	-교수 법적 기준	-전문적 교수 실행 -전문적 경영
교사의 태도/ 적성	-철학과 당위성	-반성적 사고 -협력 -전문성 발달을 위한 노력 -전문적 기여	-자아 반성 -전문성 발달을 위한 노력 -의사소통 -지역사회참여		-성격적 기준	-전문적, 개인적 개선

상기 음악교사의 자격 기준을 음악영재 담당교사의 조건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음악영재 담당교사가 지녀야 할 음악 교과지식 전문성의 세부 특성은 ‘음악교과 관련 지식과 음악연주능력’이다. 다음으로 음악 교육지식 전문성의 세부 특성은 ‘영재의 음악적 능력에 대한 지식, 음악적 발달을 포함한 영재특성 관련 이해, 음악영재 교육과정의 계획, 다양한 음악영재 수업 전략의 수립, 음악영재 교수학습 방법의 활용, 영재의 음악적 성장에 대한 평가방법의 적용’이며, 마지막으로 음악영재 담당교사가 지녀야 할 교사 적성 및 태도의 세부 특성은 ‘교사의 동기와 열정, 음악영재교육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 음악영재 담당교사로서의 전문성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자기개발 노력, 대인관계능력 및 의사소통기술’이다. 이러한 세부 특성이 과연 일반 음악교사와 음악영재 담당교사의 차별화되는 지점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가르침의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통하여 우리는 일반 음악교사와 음악영재 담당교사가 지녀야 할 다양한 속성이 특정 부분에서 구별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학습의 대상이 일반 학생과 해당 분야 영재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음악 교육지식 전문성은 일반 음악교사와 음악영재 담당교사의 속성이 구별되는 지점이다. 음악영재 담당교사는 해당 영재성과 영재교육 관련 해박한 지식 및 실무 경험을 지녀야 한다. 교사 적성 및 태도의 특성 또한 음악영재 담당교사의 경우 해당 영재와 그 교육에 대한 높은 수준의 동기를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음악교사의 그것과 차이가 난다.

이와 같은 음악영재 담당교사의 특성은 국악영재 담당교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 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지표 관련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 현재 대표적인 국악영재 교육기관으로 인지되는 국립 국악학교 및 국립 전통예술 중·고등학교 관계자와의 인터뷰 결과, 국악교과 담당교사의 선발 지표는 대부분 음악교사 선발 지표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악교과 담당교사를 따로 두기보다는 음악교과 담당교사를 공채하는 과정에서 단지 국악을 전공한 교사를 채용하는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국악교사, 나아가 국악영재 담당교사의 평가지표에 대한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원영실 외, 2012). 국악영재의 속성에 대한 선행 연구의 결과, 국악영재와 서양음악영재가 구별되는 지점은 시김새를 포함한 영역특수 창의성과 국악에 대한 높은 수준의 동기에 있음이 드러났다(원영실, 2009). 음악영재와 구별되는 국악영재의 속성은 국악영재 담당교사의 자격 조건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국악영재 담당교사는 높은 수준의 국악 교과지식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 특히 시김새와 장단을 포함한 다양한 국악적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실연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국악영재성과 해당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지녀야 하며, 국악영재를 위한 수업 전략 및 교수학습 방법을 포함한 국악 교육지식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 무엇보다도 국악영재에 대한 열정과 헌신적 태도를 보이며, 국악영재교육에 대한 높은 수준의 동기를 지녀야 한다.

상기에서 논의한 바, 최적 조건의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음악(국악)영재 교과지식 전문성, 음악(국악)영재 교육지식 전문성, 음악(국악)영재 교사로서의 적성 및 태도의 특성을 일반 음악(국악)교사보다 더욱 높은 수준으로 지녀야 한다.

III. 연구 방법

1. 델파이 방법의 선정 근거

델파이는 특정 가설에 대한 일반화 또는 표준화된 자료가 부족한 경우, 전문가적인 직관 및 의견을 객관화하는 예측방법이다. 즉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일정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문제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방법, 혹은 우편보고 방법을 통해 자신들의 전문가적인 견해를 밝히고, 그들의 의견에 대한 수회의 피드백을 활용하여 합의점을 도출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방법을 의미한다. 통계적으로 의견을 처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집단 내의 의견차이 정도를 보여주고, 강한 소수 의견의 내용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연구방법이다. 개발, 규명, 예측, 정당성을 입증하는 연구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임호용, 2010), 평가 준거를 개발하는 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이종성, 2001). 현재까지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지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합의는 미처 구성되지 못하였다. 델파이 방법을 투입함으로 인해 전문가들의 반복적인 의사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고, 그에 따라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지표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델파이 조사 대상, 기간 및 방법, 자료분석 방법

가. 델파이 조사 대상

델파이는 보통 3차 이상의 전문가 응답을 분석하여 합의점을 수렴한다. 하지만 이 연구의 특성 상, 평가지표의 초안은 연구진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이 연구의 공동연구진은 예술영재교육 전문가 2인, 영재교육 전문가 1인, 문항개발 전문가 1인, 음악 및 국악 교육전문가 2인으로 구성되었다. 상기 전문가 집단이 마련한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지표 초안의 타당도 검증에 위해 패널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델파이 패널을 구성하였다. 1, 2차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패널과 직업별 구성은 <표 2>, <표 3>과 같다.

<표 2> 1차와 2차 델파이 참여 패널 구성

	1차	2차
표집대상자 수(명)	30	25(1차 응답자 25명)
응답자 수(명)	25	25
응답률(%)	83.3%	100%

<표 3> 1차와 2차 델파이 패널의 직업별 구성

	1차	2차
대학교수(전임강사 이상)(명)	13	13
전문연구(위)원 및 실무진(명)	10	10
외래교수(겸임, 초빙, 시간강사)(명)	2	2
총계(명)	25	25

나. 델파이 조사 기간 및 방법

전문가 30명(1차)과 25명(2차)을 대상으로 우편 또는 이메일을 활용하여 총 2회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는 2013년 10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차 조사는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실시하였다.

1, 2차 델파이 조사에 앞서 공동연구진은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지표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우선 좋은 교사, 영재담당교사,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자격에 관한 학문적 배경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연구진을 중심으로 개방형 질문과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활용하여 문항의 초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2013년 7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다수의 회의와 논의를 거쳐 문항초안을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연구진이 마련한 문항초안에 대한 타당성의 여부와 중요도, 그 밖에 추가할 평가지표에 관하여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요청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 대한 결과 값을 제시한 후, 그에 대한 델파이 패널의 최종적인 중요도 판단을 다시 한 번 제시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각 개별 델파이 패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1차 조사의 결과에서 제외된 평가지표들 중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 지표들을 재평가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진의 논의 결과에 따라 작성된 문항초안 및 1, 2차 델파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지표를 최종적으로 선별하여 재구성하였다.

다. 자료분석방법

평가지표의 초안은 선행 연구 자료의 검토 및 비교분석, 개방형 질문과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활용하여 마련되었다. 해당 분야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공동연구진은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지표에 관한 개별 의견을 제시된 기한에 맞추어 충분히 제안하였다. 연구자는 공동연구진에 의해 제안된 각개의 의견들 중, 중복되는 의견이나 유사한 견해들을 하나로 통합하였고, 그 내용에 따라 대·중·소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공동연구진과 다수의 회의를 거쳐 초안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논의하였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지표를 수정 보완한 후, 1차 델파이 조사에 투입할 설문지로 구성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 분석에서는 소영역 지표들이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의 자격을 평가하는데 있어 타당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패널들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또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한 문항의 중요도 분석에서는 델파이 패널들의 반응에 대한 집중경향과 변산도를 알아보기 위해 SPSS 15.0을 활용하여 중앙값과 사분위수를 산출하였다. 나아가 각 소영역별 평균점을 산출하여 평균점 미만의 문항은 평가지표로서 변별력이 낮다고 판단하고 삭제하였다. 마지막으로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새롭게 첨가된 평가지표와 함께 공동연구진의 논의를 거쳐 문항을 수정 보완한 후, 2차 델파이 조사에 투입할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 분석에서는 최종적인 중요도 판단 및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중앙값,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산출된 2차 델파이 분석결과와 1차 델파이 분석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문항별 CVR을 산출하여 내용타당도가 확보된 지표들만 최종 문항으로 선정

하였다. 이 연구의 델파이 패널 수는 25이기에 .05 수준에서 CVR이 .37 이상인 문항만을 내용타당도가 확보된 문항으로 보아 최종 평가지표로 수렴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지표의 초안 구성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지표의 초안 구성을 위하여 연구진은 해당 지표와 관련된 국내의 문헌 및 법규를 검토하고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음악(국악)영재 교과지식 전문성, 음악(국악)영재 교육지식 전문성, 음악(국악)영재 교사 적성 및 태도’를 대영역 평가지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대영역 지표를 근거로 하여 각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다면적 특성들을 분류한 후 중영역 지표로 구성하였다. 즉, 음악(국악)영재 교과지식 전문성의 중영역 지표로 음악(국악)이론 및 배경지식을 의미하는 ‘음악(국악)교과 관련 지식’과 청음 및 연주를 포함한 음악(국악)실행능력을 의미하는 ‘음악(국악)연주능력’을 설정하였다. 음악(국악)영재 교육지식 전문성의 중영역은 학습자의 음악적 능력 및 발달, 개인차 등을 의미하는 ‘학습자 특성 이해’와 수업 준비 및 실행, 수업 평가 및 활용 등을 의미하는 ‘학습(수업)지도 및 운영기술’을 설정하였고,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인 점을 감안하여 음악(국악)영재성의 이해, 음악(국악)영재의 선별 및 판별, 영재교육과정 및 평가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교육실행능력을 의미하는 ‘음악(국악)영재교육 관련 전문지식’을 중영역에 포함시켰다. 음악(국악)영재 교사 적성 및 태도의 중영역 지표로 교직에 대한 신념 및 소명의식, 음악(국악)영재의 인권과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포함한 ‘교직가치관’과 음악(국악)영재에 대한 애정과 관심, 기대, 교사효능감을 의미하는 ‘음악(국악)영재에 대한 열정과 동기’, 적극적 경청 및 소통, 올바른 언어사용 등을 포함한 ‘대인관계능력 및 의사소통기술’을 설정하였다.

중영역 지표를 기반으로 하여 그에 해당되는 세부 특성들이 분류됨으로써 평가지표의 초안이 구성되었다. 연구진이 제안한 세부지표의 문항 수는 개인에 따라 90~103개이다. 음악(국악)영재 교과지식 전문성의 세부지표는 총 36문항으로서, 음악(국악)교과지식 관련 7문항, 배경지식 관련 6문항, 청음능력 관련 6문항, 연주능력 관련 1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음악(국악)영재 교육지식 전문성의 세부지표는 총 50문항으로서, 학습자의 음악적 발달과 개인차 관련 10문항, 학습(수업)준비 관련 8문항, 학습(수업)실행 관련 17문항, 수업 평가 및 활용 관련 5문항, 음악(국악)영재교육 관련 전문지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음악(국악)영재 교사 적성 및 태도의 세부지표는 총 66문항으로서, 교직 가치에 대한 신념 6문항, 교직에 대한 소명의식 7문항, 학습자의 인권과 의견 존중 9문항, 음악(국악)영재에 대한 애정과 열정 11문항, 음악(국악)영재에 대한 믿음과 기대 6문항, 교사효능감 4문항, 적극적 경청과 소통 11문항, 올바른 언어사용 3문항, 자기개발노력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1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

먼저 평가 영역의 타당성에 대한 1차 델파이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평가 영역 타당성에 대한 1차 델파이 분석 결과

소영역	평균(점)	4점 이상 응답 비율(%)	비 고
음악(국악) 교과지식	4.92	100	- 타당함(4점) 2명(8%) - 매우 타당함(5점) 23명(92%)
배경지식	4.60	96	- 타당함(4점) 8명(32%) - 매우 타당함(5점) 16명(64%)
청음능력	4.72	96	- 타당함(4점) 5명(20%) - 매우 타당함(5점) 19명(76%)
연주능력	4.60	96	- 타당함(4점) 8명(32%) - 매우 타당함(5점) 16명(64%)
학습자의 음악적 발달과 개인차	4.92	100	- 타당함(4점) 2명(8%) - 매우 타당함(5점) 23명(92%)
학습(수업)준비	4.76	100	- 타당함(4점) 6명(24%) - 매우 타당함(5점) 19명(76%)
학습(수업)실행	4.80	100	- 타당함(4점) 5명(20%) - 매우 타당함(5점) 20명(80%)
수업 평가 및 활용	4.76	100	- 타당함(4점) 6명(24%) - 매우 타당함(5점) 19명(76%)
음악(국악)영재 교육관련 전문지식	4.80	100	- 타당함(4점) 5명(20%) - 매우 타당함(5점) 20명(80%)
교직가치에 대한 신념	4.72	92	- 타당함(4점) 3명(12%) - 매우 타당함(5점) 20명(80%)
교직에 대한 소명의식	4.72	92	- 타당함(4점) 3명(12%) - 매우 타당함(5점) 20명(80%)
학습자의 인권과 의견 존중	4.80	96	- 타당함(4점) 3명(12%) - 매우 타당함(5점) 21명(84%)
음악(국악)영재에 대한 애정, 열정	4.88	100	- 타당함(4점) 3명(12%) - 매우 타당함(5점) 22명(88%)
음악(국악)영재에 대한 믿음 기대	4.88	100	- 타당함(4점) 3명(12%) - 매우 타당함(5점) 22명(88%)
교사 효능감	4.68	92	- 타당함(4점) 2명(8%) - 매우 타당함(5점) 21명(84%)
적극적 경청과 소통하기	4.96	100	- 타당함(4점) 1명(4%) - 매우 타당함(5점) 24명(96%)
올바른 언어의 사용	4.52	96	- 타당함(4점) 10명(40%) - 매우 타당함(5점) 14명(56%)
자기계발 노력	4.88	100	- 타당함(4점) 3명(12%) - 매우 타당함(5점) 22명(88%)
합 계	4.77	97.6	

대영역 3개, 중영역 8개, 소영역 18개로 구성된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지표 초안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타당성 분석 결과, 대·중·소 영역에 대한 타당성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평가 세부지표의 중요도에 대한 의견 분석 결과, 중앙값은 4~5이고 평균은 3.92~5, 사분위수 범위가 대부분 4~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1차 델파이 중요도의 기술통

계량은 <표 6, 7, 8>에 2차 결과와 함께 제시하였다. 25명으로 구성된 1차 델파이 패널이 제시한 기타 의견 중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전문가 1: 소영역 중에서 교사효능감은 다른 지표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지만, 평가지표만 놓고 보자면, 일반적으로 교사에게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 전문가 2: 소영역 중에서 배경지식이라는 용어가 모호합니다. / 위계나 단계에 따른 제시나 유사 평가지표의 근접배치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 세부지표의 항목 수가 많습니다.
- 전문가 3: 3번과 7번, 10번과 13번 지표의 내용이 다소 중복됩니다. / 절대음감은 교사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뛰어난 연주능력은(전공실기지도를 담당하는 교사가 아닌 경우) 영재담당교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자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연주능력과 관련한 지표 중 일부(32번, 34번, 36번)는 다른 지표에 비해 질문 내용이 다소 구체적이라 생각합니다.

1차 델파이 패널이 제시한 기타 의견들은 크게 네 가지의 의견으로 수렴된다. 첫째, 내용

<표 5> 1차 델파이 분석 결과에 따른 수정 사항

대영역	수정 사항 없음
중영역	수정 사항 없음
	○ 문항 삭제(번): 교과지식: 3, 11, 12, 13, 15, 16, 17, 21, 25, 32, 33, 34, 36 교사 적성 및 태도: 9, 17, 21, 22, 28, 30, 32, 47, 51, 52, 61, 63, 64, 65
	○ 문항 이동: 1) 음악(국악)교과 관련 이론, 2번 ⇒ 자기계발 영역으로 이동 2) 교사 효능감, 41번 ⇒ 음악적 발달과 개인차 영역으로 이동 3) 올바른 언어의 사용, 55번 ⇒ 적극적 경청과 소통하기 영역으로 이동
소영역	○ 문항 수정 1) 소영역, 음악(국악)교과 이론 ⇒ 음악(국악)교과 지식으로 수정 2) 소영역, 배경지식 ⇒ 교사의 주전공 외 음악(국악)관련 배경지식으로 수정 3) 소영역, 연주능력 ⇒ 연주능력(기악 및 가창 능력)으로 수정 4) 학습(수업)실행 20번, 음악영재 수업 시, 강제로 이끌어가기보다 안내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 음악영재 수업 시, 학습의 촉진자 역할을 담당한다로 수정 5) 음악(국악) 영재 관련 전문지식 47번, 미성취 음악(국악)영재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음악(국악)영재에 대하여 들어보았다 ⇒ 미성취 음악(국악)영재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음악(국악)영재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수정 6) 교직가치에 대한 신념 5번, 교사만의 교육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 영재교육에 대한 교육철학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수정 7) 자기계발노력 62번, 교육현안의 주요 흐름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교육현안의 주요 흐름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로 수정 8) 연주능력 30번, 가창능력이 우수하다 ⇒ 가창(악보 보고 부르기) 능력이 우수하다로 수정 9) 교사의 태도 및 적성 24, 53, 59번 문항내용 중 ‘늘, 항상’이라는 용어 삭제 10) 배경지식 10번, 영재담당교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음악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다 ⇒ 음악 분석 및 해석, 비평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수정

상 중복 문항을 합치거나 삭제하여 세부지표인 최종 문항의 수를 줄이는 것이며 둘째, 세부 지표의 내용 상 잘못 구성되어 있는 문항의 영역을 이동하는 것이다. 셋째, 너무 일반적이거나 반대로 구체적인 지표는 문항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며 넷째, 유사 평가지표의 근접배치를 고려하여 피험자의 응답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타 의견을 바탕으로 1차 델파이 설문지를 수정하였고, 2차 델파이 조사용 설문지로 재구성하였다.

3. 2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

평가 세부지표의 타당성에 대한 2차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6, 7, 8>과 같다.

<표 6> 음악(국악)영재 교과지식 전문성의 세부지표에 대한 의견 분석결과

중영역 / 소영역	지표 번호	세부 지표	1차			2차			CVR
			Md	M	SD	Md	M	SD	
음악 (국악) 교과에 대한 지식	1	음악(국악) 교과의 기초 지식 및 이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5	4.92	.277	5	4.96	.200	1.00
	2	음악(국악)교과 및 음악(국악)영재교육의 목적 및 세부 목표를 정확하게 이해한다	5	4.88	.332	5	4.96	.200	1.00
	3	음악(국악) 교과의 주요 사조와 철학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4	4.36	.700	4	4.28	.614	.84
	4	국가수준의 음악(국악)과 교육과정의 체계와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5	4.72	.542	5	4.92	.277	1.00
	5	음악(국악) 교과의 구조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5	4.64	.569	5	4.80	.408	1.00
	6	전공 외의 음악(국악) 관련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서양음악사, 국악사, 예술사, 예술철학사, 화성학, 작곡 및 편곡, 지휘, 공연예술 전반에 대한 통합적 이해 등)을 습득한다	5	4.52	.653	5	4.48	.586	.92
	7	음악(국악) 교과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꾸준히 습득하고 있다	5	4.88	.332	5	4.92	.277	1.00
	8	영재담당교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음악 분석 및 해석, 비평 능력을 가지고 있다	5	4.68	.627	5	4.84	.374	1.00
	9	일반 음악교사에 비하여 우수한 청음능력을 지니고 있다	5	4.64	.569	5	4.64	.490	1.00
	10	높은 수준의 청각적 변별력(음고, 리듬, 음조, 음색 등에 대한 예민한 청각력)을 가지고 있다	5	4.76	.436	5	4.84	.374	1.00
	11	음악을 듣고 그 선율을 기억하여 노래하거나 연주할 수 있다	5	4.64	.569	5	4.56	.583	.92
	12	독보 및 기보능력을 가지고 있다	5	4.64	.490	5	4.68	.476	1.00
	13	영재담당교사에게 요구되는 피아노 연주능력을 가지고 있다	4	4.28	.678	4	4.44	.507	1.00
	14	일반 음악교사보다 높은 수준의 즉흥연주 능력을 가지고 있다	4	4.32	.748	4	4.36	.490	1.00

중영역 / 소영역	지표 번호	세부 지표	1차			2차			CVR	
			Md	M	SD	Md	M	SD		
음악 (국악) 연주 능력	연주 능력 (기악 및 가창 능력)	15	일반 음악교사보다 높은 수준의 변주 능력을 가지고 있다							1.00
		16	양상בל과 합주를 잘 지도할 수 있다							1.00
		17	새로운 음색을 만들 수 있다							.84
		18	교사 개인의 독창적인 연주 기법과 음색을 가지고 있다							.84
		19	우수한 악기연주 기량을 지니고 있다(정확한 음정과 박자, 아티클레이션, 표현성, 정교함 등)							.92
		20	가창(악보 보고 부르기)능력이 우수하다(정확한 음정과 박자, 표현성, 정교함 등)							1.00
		21	악곡을 재해석하여 독창적(교사 개인의 생각과 감성, 정서를 음악적으로 구성하여)으로 연주(가창 및 기악)할 수 있다							.92
		22	일반음악교사보다 높은 수준의 멜로디 재현능력을 가지고 있다							1.00

<표 7> 음악(국악)영재 교육지식 전문성의 세부 지표에 대한 의견 분석결과

중영역 / 소영역	지표 번호	세부 지표	1차			2차			CVR	
			Md	M	SD	Md	M	SD		
학습자 특성 이해	학습자의 음악적 발달과 개인차 이해	1	음악(국악)영재들이 지닌 음악적 능력의 차이(음정지각, 리듬지각 등에서 다양한 개인차를 보임)를 이해한다							1.00
		2	음악(국악)영재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1.00
		3	음악(국악) 영재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 관심을 기울인다							.92
		4	음악(국악) 영재 개개인의 재능과 흥미에 관심을 가진다							1.00
		5	음악(국악) 영재의 인지, 사회, 정의적 특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다							1.00
		6	음악(국악) 영재의 개별 특성과 재능을 수시로 점검하여 수업 및 평가에 반영한다							1.00
		7	학습자의 특성(발달과 개인차이론)관련 교사 연수 및 수업, 다양한 학회에 참석하려고 노력한다							.92
		8	음악(국악)영재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계획한다							1.00
		9	음악(국악) 영재의 다양성(개인차)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계획한다							1.00
		10	학습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1.00
		11	수업 상황에서 문제나 어려움을 보이는 영재를 잘 다루고 교육할 수 있다							1.00

중영역 / 소영역	지표 번호	세부 지표	1차			2차			CVR		
			Md	M	SD	Md	M	SD			
학습자 특성 이해	학습 (수업) 준비	12	수업에 대한 영재의 사전학습 수준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수업내용의 범위와 난이도를 계획한다	5	4.92	.277	5	5.00	.000	1.00	
		13	메시간 수업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	5	4.80	.500	5	4.92	.277	1.00	
		14	수업에 필요한 교과내용 분석 및 연구가 충실히 이루어진다	5	4.88	.332	5	4.96	.200	1.00	
		15	학습 내용을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에 따라 다르게 수업설계 할 수 있다	5	4.76	.436	5	4.80	.500	.92	
		16	참신한 수업 자료를 활용한다	5	4.68	.557	5	4.72	.458	1.00	
		17	음악(국악) 영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수업 내용 및 전략)을 계획한다	5	4.88	.332	5	5.00	.000	1.00	
		18	음악(국악)영재의 동기화를 촉진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수업 내용 및 전략)을 계획한다	5	4.88	.332	5	4.96	.200	1.00	
		19	다양한 학문과 연계된 융합 교육과정을 계획한다	4	4.36	.638	5	4.52	.510	1.00	
		20	수업에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한다	5	4.80	.408	5	4.96	.200	1.00	
	학습 (수업) 이해	학습 (수업) 실행	21	음악(국악) 영재 수업 시, 학습의 촉진자 역할을 담당한다	5	4.80	.500	5	5.00	.000	1.00
			22	수업시, 교사와 영재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5	4.96	.200	5	5.00	.000	1.00
			23	음악(국악) 영재에서 적절한 교육적 지원과 피드백을 제공한다	5	4.92	.277	5	5.00	.000	1.00
			24	영재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5	4.92	.400	5	5.00	.000	1.00
			25	수업 시간을 효과적으로 운영한다	5	4.80	.500	5	4.92	.277	1.00
			26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5	4.80	.500	5	5.00	.000	1.00
			27	수업 시, 영재에게 적절한 질문을 던진다	5	4.84	.374	5	4.96	.200	1.00
			28	수업 진행을 무리가 없이 원활하게 할 수 있다	5	4.68	.557	5	4.68	.476	1.00
			29	학습자의 질문 및 애로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처리한다	5	4.88	.332	5	4.96	.204	.92
			30	수업의 방향 및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습자의 의견을 묻고 반영한다	5	4.80	.500	5	4.92	.277	1.00
31	매학기 수업내용을 개선한다	5	4.60	.577	4	4.40	.646	.84			
32	음악(국악)영재에게 적합한 교과 내용 및 교수 기술을 재구성하여 창의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5	4.96	.200	5	4.92	.277	1.00			
33	획일화된 수업방법 이외의 영재의 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	5	4.92	.277	5	4.96	.200	1.00			
34	교사용 교과서에 제시된 교수 기술로부터 탈피하여 교사 자신이 고안한 교수방법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5	4.68	.557	4	4.36	.860	.92			

중영역 / 소영역	지표 번호	세부 지표	1차			2차			CVR
			Md	M	SD	Md	M	SD	
학습 (수업) 실행	35	음악(국악)과 관련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알고 있다	5	4.88	.332	5	4.96	.200	1.00
	36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고안한다	5	4.76	.436	5	4.72	.458	1.00
수업 평가 및 활용	37	타당하고 공정한 평가 내용 및 방법을 사용한다	5	4.80	.500	5	4.96	.204	.92
	38	음악(국악)영재를 대상으로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의 평가를 수행한다	5	4.68	.557	5	4.83	.381	.92
	39	음악(국악)영재 평가 방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5	4.84	.374	5	5.00	.000	.92
	40	영재의 성장을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가지고 있다	5	4.72	.542	5	4.8	.500	.92
	41	평가 결과에 대해 영재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5	4.88	.332	5	5.00	.000	1.00
학습 (수업) 이해	42	음악(국악) 영재성의 특성을 잘 이해한다	5	4.96	.200	5	5.00	.000	1.00
	43	음악(국악) 영재의 선별 및 관별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다	5	4.92	.277	5	5.00	.000	1.00
	44	음악(국악) 영재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다	5	4.88	.338	5	5.00	.000	1.00
음악 (국악) 영재교육 관련 전문 지식	45	음악(국악)영재 프로그램을 충분히 이해한다	5	4.92	.277	5	5.00	.000	1.00
	46	음악(국악)영재 평가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다	5	4.88	.332	5	4.84	.800	.92
	47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알고 있다	5	4.52	.586	5	4.60	.500	1.00
	48	미성취 음악(국악)영재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음악(국악)영재에 대하여 알고 있다	5	4.40	.707	5	4.72	.458	1.00
	49	우리나라 영재교육 정책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	4.5	4.42	.654	5	4.60	.500	1.00
	50	음악(국악) 영재 교사 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5	4.76	.436	5	4.64	.569	.92
	51	음악(국악) 영재 담당교사를 해본 적이 있다	5	4.36	.810	4	4.28	.542	.92

<표 8> 음악(국악)영재 교사 적성 및 태도의 세부 지표에 대한 의견 분석결과

중영역 / 소영역	지표 번호	세부 지표	1차			2차			CVR
			Md	M	SD	Md	M	SD	
교직 가치관	1	교사의 언행은 학습자의 언행에 영향을 미친다	5	4.76	.523	5	4.92	.277	1.00
	2	교사의 역할에 따라 학습자는 달라질 수 있다	5	4.80	.500	5	4.96	.200	1.00
	3	교사는 긍정적인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한다	5	4.88	.440	5	4.96	.200	1.00
	4	영재에게 강조한 가치 및 신념을 지킨다	5	4.80	.500	5	4.92	.277	1.00

중영역 / 소영역	지표 번호	세부 지표	1차			2차			CVR	
			Md	M	SD	Md	M	SD		
교직 가치에 대한 신념	5	영재교육에 대한 교육철학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5	4.72	.614	5	5.00	.000	1.00	
	6	교사로서의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	5	4.84	.473	5	5.00	.000	1.00	
	7	교직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교사직에 임한다	5	4.56	.651	4	4.36	.860	.92	
	8	교직에 대한 가장 좋은 사회적 대우는 교사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다	5	4.64	.569	5	4.44	.870	.92	
	9	교사는 다른 직업들과 다르고 나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5	4.80	.500	5	4.92	.277	1.00	
	10	교직은 전문직이다	5	4.92	.400	5	5.00	.000	1.00	
	11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다	5	4.92	.400	5	5.00	.000	1.00	
	12	교직에 대하여 기꺼이 헌신한다	5	4.80	.500	5	4.96	.200	1.00	
	교직 가치관	13	연령과 상관없이 음악(국악)영재를 무시하지 않는다	5	4.72	.614	5	4.84	.374	1.00
		14	영재의 사회, 문화, 종교적 배경을 존중한다	5	4.96	.200	5	4.96	.200	1.00
		15	영재와의 상담내용에 대하여 발설하지 않는다	5	4.84	.473	5	4.92	.277	1.00
		16	영재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다	5	4.48	.714	4	4.32	.852	.92
17		영재를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고 자율성을 존중한다	5	4.96	.200	5	4.96	.200	1.00	
18		영재를 조건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지도 및 평가한다	5	4.92	.277	5	5.00	.000	1.00	
음악(국악)영재에 대한 애정, 관심, 열정	19	음악(국악)영재를 사람으로 대한다	5	4.92	.282	5	4.96	.200	1.00	
	20	음악(국악)영재의 행복한 삶에 대하여 생각한다	5	4.64	.638	5	4.48	.872	.92	
	21	칭찬에 인색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5	4.80	.408	5	4.76	.831	.92	
	22	영재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고자 노력한다	5	4.84	.374	5	4.96	.200	1.00	
	23	영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5	4.88	.332	5	4.80	.817	.92	
	24	영재의 진로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다	5	4.80	.408	5	5.00	.000	1.00	
	25	음악(국악)영재의 내면적, 외면적 문제에 대하여 공감할 수 있다	5	4.83	.381	5	4.80	.500	.92	
	26	음악(국악)영재의 성장한 모습을 통해 보람과 행복을 느낀다	5	4.92	.277	5	4.96	.200	1.00	
	27	음악(국악)영재의 장점을 발견하고 격려한다	5	5.00	.000	5	5.00	.000	1.00	
	28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영재의 잠재력을 중요시 한다	5	4.96	.200	5	4.96	.200	1.00	
음악(국악)영재에 대한 믿음과 기대	29	음악(국악)영재 개개인의 관심사와 흥미를 계발하도록 격려한다	5	4.92	.277	5	4.96	.200	1.00	
	30	음악(국악)영재의 지속적 성장을 믿는다	5	4.92	.277	5	4.96	.200	1.00	

중영역 / 소영역	지표 번호	세부 지표	1차			2차			CVR	
			Md	M	SD	Md	M	SD		
음악(국악)영재에 대한 열정 및 동기	음악(국악)영재에 대한 믿음과 기대	31	음악(국악)영재는 앞으로 국가와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5	4.80	.408	5	4.92	.277	1.00
		32	음악(국악)영재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5	4.84	.374	5	4.96	.200	1.00
	교사 효능감	33	나는 음악(국악)영재를 잘 가르칠 수 있다	5	4.88	.332	5	4.96	.200	1.00
		34	잘 가르치는 교사란 가르치는 기술보다 잘 가르치려는 마음자세에 달려 있다	5	4.64	.569	5	4.60	.866	.92
		35	교육 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5	4.92	.277	5	4.92	.277	1.00
		36	영재들의 이야기를 편견없이 듣는다	5	4.92	.277	5	4.96	.200	1.00
		37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영재들의 질문과 의견을 경청한다	5	4.96	.200	5	5.00	.000	1.00
		38	동료교사들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5	4.76	.436	5	4.68	.476	1.00
대인 관계 능력 및 의사소통 기술	적극적 경청과 소통하기	39	수업시간 외에도 영재들과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	5	4.96	.200	5	4.88	.332	1.00
		40	영재와의 대화 시, 의견을 잘 듣고 반영한다	5	4.88	.448	5	4.96	.200	1.00
	바른 문법과 단어 사용	41	동료교사의 비판을 수용할 수 있다	5	4.72	.542	5	4.76	.523	.92
		42	동료교사들과 협력한다	5	4.80	.408	5	4.92	.277	1.00
		43	'나' 메시지를 활용하여 대화한다	4	4.20	.764	4	4.20	.817	.92
		44	동료교사, 교장, 교감, 학부모, 교육행정가 등, 다른 사람들과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5	4.56	.712	5	4.52	.510	1.00
		45	긍정적 언어와 표현을 사용한다	5	4.80	.408	5	4.92	.277	1.00
		46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쉽게 설명한다	5	4.76	.436	5	4.76	.831	.92
자기 개발 노력	자기 개발 노력	47	수업이 끝난 후, 자신의 교육 활동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갖는다	5	4.88	.332	5	4.96	.200	1.00
		48	개인적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한다	5	4.96	.200	5	4.96	.200	1.00
		49	다른 사람의 피드백에 귀를 기울이고 수용한다	5	4.92	.277	5	4.92	.277	1.00
		50	교육현안의 주요 흐름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5	4.68	.627	5	4.80	.408	1.00
		51	학회 및 교사연수, 음악회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음악(국악)영재교육과 관련된 최신 이론 및 동향을 파악한다	5	4.72	.458	5	4.80	.408	1.00
		52	음악(국악)영재를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들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다	5	4.92	.277	5	5.00	.000	1.00

<표 6, 7, 8>에 나타난 분석 결과를 수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차와 2차 결과에 나타난 표준편차를 비교하면, 음악(국악)영재 교과지식 전문성 세부지표의 경우, 1개 문항(11번 문항)을 제외하고 표준편차의 범위가 1차에 비해 2차에서 축소되었다. 음악(국악)영재 교육 지식 전문성의 세부지표는 8개 문항(7번, 15번, 31번, 32번, 34번, 36번, 46번, 50번)을 제외하고 표준편차의 범위가 축소되었고, 음악(국악)영재 교사 적성 및 태도의 세부 지표는 12개

문항(7번, 8번, 16번, 20번, 21번, 23번, 25번, 34번, 38번, 39번, 43번, 46번)을 제외하고 표준 편차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델파이 패널의 평점 범위가 좁혀짐으로써 평가지표 및 문항타당도에 대한 합의점에 도달하고 이 연구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이 수렴되었음을 반영해준다. 둘째, 내용타당도 비율(CVR)을 살펴보면, 음악(국악)영재 교과지식 전문성과 교육지식 전문성의 세부지표에 대한 CVR의 범위는 모두 .84~1.00로 나타났고, 음악(국악)영재 교사 적성 및 태도의 세부지표에 대한 CVR의 범위는 .92~1.00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가지표의 내용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2차 델파이 패널이 제시한 기타 의견 중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전문가 1: 의미가 중복되는 문항은 삭제 / 교사 적성 및 태도 영역, 46번 문항의 내용이 조금 어색합니다. '정확한 단어로 쉽게 표현한다'로 수정하면 어떨까요? / 소영역 중에서 '음악(국악)영재에 대한 애정, 관심, 열정'과 '믿음과 기대'를 한 영역으로 묶은 후 제목을 달리하면 어떨까요?
- 전문가 2: 이 평가지표에 의한다면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자격을 갖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전문가 3: 음악(국악)영재 교과지식 전문성의 20번 문항 수정이 필요합니다. 약보보고 부르기라는 표현이 모호합니다. 가장 능력(정확한 음정과 박자, 표현성, 정교함 등)이 우수하다, 혹은 영재교육과정에 수록된 가창악보를 보고 충분히 시범창할 수 있다 등, 분명한 내용으로 수정 필요 / 음악(국악)영재 교육지식 전문성 부분에서 중복되거나 의미가 불분명한 문항은 삭제가 필요합니다.

이밖에 2차 델파이 패널이 제시한 기타 의견을 참고로 하여 문항의 내용을 수정하였고,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의 최종 평가지표로 구성하였다.

<표 9> 2차 델파이 분석 결과에 따른 수정 사항

기술통계 분석결과에 따른 수정		2차 델파이 패널이 제시한 기타 의견에 따른 수정	
삭제	삭제	수정	영역이동
-교과지식전문성: 11번 문항	-교과지식 전문성: 14, 18번 문항	-교과지식 전문성: 20번 문항, 가창(악보 보고 부르기)능력이 우수하다 ⇒ 가장능력(정확한 음정과 박자, 표현성, 정교함)이 우수하다[수정]	-교육지식 전문성: ① 7번 문항 ⇒ 자기개발 영역으로[이동]
-교육지식전문성: 7, 9, 15, 21, 24, 30, 31, 32, 34, 36, 46, 50번 문항	-교육지식 전문성: 11, 18, 29번 문항	-교육지식 전문성: 38번 문항, 음악(국악)영재를 대상으로 결과보다는 과정중심의 평가를 한다 ⇒ 음악(국악)영재를 대상으로 과정중심의 평가를 한다[수정]	② 8번 문항 ⇒ 수업 준비 영역으로[이동] ③ 9번 문항 ⇒ 수업 준비 영역으로[이동]
-교사 적성 및 태도: 7, 8, 16, 20, 21, 23, 25, 34, 38, 39, 43, 46번 문항	-교사 적성 및 태도: 1, 2, 9, 32, 36, 40, 41, 44번 문항	-교사적성 및 태도: 13번 문항, 연령과 상관없이 음악(국악)영재를 무시하지 않는다 ⇒ 어린 연령의 음악(국악)영재를 배려한다[수정]	④ 31번 문항 ⇒ 수업 평가 및 활동으로[이동]

V. 종합적 논의 및 결론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지표 관련 논의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영역 중에서 ‘음악(국악)영재에 대한 애정, 관심, 열정’과 ‘음악(국악)영재에 대한 믿음과 기대’ 영역을 묶을 것인지의 여부이다. ‘애정, 관심, 열정’과 ‘믿음, 기대’의 속성을 차별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두 소영역의 세부지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섬세한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애정, 관심, 열정’ 영역은 교사가 영재를 위하여 무언가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행동 특성으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며, ‘믿음, 기대’ 영역은 영재를 대상으로 교사가 무언가를 ‘격려하는’ 행동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두 개의 소영역은 그대로 남겨두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인식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음악(국악)영재에 대한 애정, 관심, 열정’을 ‘음악(국악)영재에 대한 애정’으로 수정하였다. 즉, 중영역인 ‘음악(국악)영재에 대한 열정 및 동기’는 ‘음악(국악)영재에 대한 애정’, ‘음악(국악)영재에 대한 믿음과 기대’, ‘교사효능감’의 소영역으로 최종 구성되었다.

둘째, 이 연구에서 제안된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지표대로라면 해당 교사는 곧 초인적인 존재로서 실제 그 자격을 갖추기가 수월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이다. 높은 수준의 음악(국악)영재 교과지식과 교육지식 전문성, 교사적성을 지닌 교사를 찾기란 쉽지 않다. 환언하면 모든 평가지표에서 5점에 해당되는 자격을 지닌 교사는 드물 것이다. 그러나 평가지표의 최종 목적이 교사의 현재 자격 수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넘어서 향후 교사교육을 통해 해당 지표로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데에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즉, 특정 교사가 이 연구의 평가지표를 자기 보고했다면, 우리는 그 결과를 통해 해당 교사가 지닌 강점 및 약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나아가 교사는 설문지를 기록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기 성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평가지표는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주고, 그에 따라 해당 교사가 그 부분을 보강할 수 있도록 이끄는 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평가 세부지표의 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문항 수가 많으면 교사가 자기보고하는 동안 집중도가 하락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문항 수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연구에서 제안된 평가지표의 타당도는 델파이 기법을 통하여 확보되었다. 더욱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설문지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표집을 통한 요인분석이 필요하다. 다소 많게 느껴지는 문항의 수는 후속되는 구인타당화 연구를 통하여 충분히 수렴될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 음악(국악) 교과지식 전문성 영역에서 ‘연주능력’에 대한 전문가 간의 이견이다.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가 지녀야 할 연주능력에 대한 의견은 음악(국악) 전공자와 교육학 전공자의 생각이 다르고, 나아가 음악(국악) 전공자 중에서도 실기분야 전공자와 이론분야 전공자, 음악(국악)교육 전공자의 생각이 각각 다르다. 이것은 자신의 전경에 따라 연주능력이라는 음악적 개념을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연주능력은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가 지녀야 할 주요 조건 중에 하나이다. 교사의 정확한 실연(實演)이 백마디의 언어를 사용한 설명보다 더욱 효과적이고 감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는 더욱 높은 수준의 연주 능력을 지니기 위하여 늘 노력하고 훈련해야 한다.

이 연구의 결과와 상기의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3개의 대영역과 8개의 중영역, 18개의 소영역은 음악(국악)영재 담당 교사의 자격 평가를 위한 준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CVR을 확보한 상기의 평가지표는 최적 조건의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를 선발할 때 즉시 활용될 수 있다.

<표 10>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 지표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세부지표
음악(국악)영재 교과지식 전문성	-음악(국악)교과에 대한 지식	-음악(국악)교과 관련 지식	5문항
		-교사의 전공영역 외 음악(국악) 관련 배경지식	3문항
음악(국악)영재 교육지식 전문성	-음악(국악)연주능력	-청음능력	2문항
		-연주능력(기악 및 가창 능력)	9문항
음악(국악)영재 교육지식 전문성	-학습자 특성 이해	-학습자의 음악적 발달과 개인차 이해	7문항
		-학습(수업) 준비	7문항
음악(국악)영재 교육지식 전문성	-학습(수업) 이해	-학습(수업) 실행	10문항
		-수업 평가 및 활용	4문항
음악(국악)영재 교사적성 및 태도	-교직가치관	-음악(국악)영재교육 관련 전문지식	8문항
		-교직가치에 대한 신념	4문항
음악(국악)영재 교사적성 및 태도	-음악(국악)영재에 대한 열정 과 동기	-교직에 대한 소명의식	3문항
		-학습자의 인권과 의견을 존중	5문항
음악(국악)영재 교사적성 및 태도	-대인관계능력 및 의사소통기술	-음악(국악)영재에 대한 예정	4문항
		-음악(국악)영재에 대한 믿음, 기대	5문항
음악(국악)영재 교사적성 및 태도	-자기개발	-교사효능감	2문항
		-적극적 경청과 소통하기	3문항
음악(국악)영재 교사적성 및 태도	-자기개발	-바른문법과 단어사용	1문항
		-자기개발노력	6문항

교사의 자기보고 방식인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지표는 현재 음악(국악)영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현직 교사와 향후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일선 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영재의 1차 선별 시, 교사관찰추천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평가문항에 대한 교사의 자기보고 결과가 어느 정도 확보된 교사에게 음악(국악)영재의 선별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일반 교육현장에서 야기되는 예술영재 선별 및 판별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제안된 평가지표는 현재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가 지닌 역량 수준을 평가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교사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교사 연수를 통해 더욱 성장하고자 하는 영재담당교사에게 어느 부분을 보충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다.

최적의 자격을 갖춘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는 음악(국악)영재의 선별 및 판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선행 구비 조건이다. 음악(국악)영재 담당교사 평가지표는 최적의 조건을 지닌

교사를 선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성공적인 예술영재교육 결과의 산출을 위한 기저가 되어 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아영 (2012). 교사전문성 핵심요인으로서의 교사전문성. **교육심리연구**, 26(1), 63-84.
- 김옥예 (2006). 교사전문성의 재개념화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4(4), 139-160.
- 김이경, 유근상, 이태상, 박상완, 정금현 (2004). **교사평가 시스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정책연구보고서.
- 김정휘 (1996). **영재학생의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필요충분 조건들: 가정·영재자신·학교의 역할**. 서울: 원미사.
- 김정휘, 주영숙 (1996). **영재학생을 위한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박경희, 서혜애 (2007). 영재교육 교사전문성의 구성 요소 탐색 연구. **영재교육연구**, 17(1), 77-98.
- 박창언, 서혜애 (2010). 영재교육기관 교원자격에 관한 법 규정의 검토. **영재교육연구**, 20(1), 231-256.
- 석문주 (2008). 미국 음악교사 기준의 새로운 변화. **음악교육연구**, 34, 25-57.
- 신명희, 강소연, 김은경, 김정민, 노원경, 서은희, 송수지, 원영실, 임호용 (2014). **교육심리학(3판)**. 서울: 학지사.
- 오옥환 (2005). **교사전문성: 교육전문가로서의 교사에 대한 논의**. 서울: 교육과학사.
- 원영실 (2009). **국악영재 판별을 위한 가락 및 리듬 인지능력 검사도구 개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원영실 (2011). 음악영재성 선별을 위한 교사관찰정보지의 개발 및 적용. **음악과 문화**, 25, 147-176.
- 원영실 (2013). 음악(국악)영재성 선별을 위한 교사관찰정보지(OSTG)의 구인타당화. **영재교육연구**, 23(1), 1-24.
- 원영실, 신명희, 김은경, 정재은 (2012). **예술영재교사의 조건에 관한 고찰: 국악 및 서양음악 분야**.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정책연구 보고서.
- 이종성 (2001). **텔파이 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 임호용 (2010). **성인교육 교수자의 교수 활동 평가 준거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전재호, 최미정 (2011). 교사의 지식 및 정의적 특성과 효과적인 수업행동의 인과관계 연구.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11(2), 187-212.
- 조석희, 김홍원, 황인성 (1998). **초등학교 영재 심화학습 운영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정책연구 보고서.
- 천은수 (2009). 어느 역사교사의 ‘가르치기 위한 지식’ 연구: 내용교수지식(PCK)과 교수학

- 적 전환(DT), 그리고 실천지식. *역사교육연구*, 10, 85-121.
- 최미영 (2012). 음악교사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음악교육연구*, 41(2), 339-368.
- 최은식 (2006). 미국 음악교사 양성제도의 새로운 동향. *음악과 문화*, 15, 59-77.
- 한국교육개발원 (2011).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방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교사 관찰추천제 바로 알기**. 한국교육개발원 학부모자료집.
- Council of Chief State School Officers (2011). *Interstate Teacher Assessment and Support Consortium (In TASC), Model Core Teaching Standards: A Resource for State Dialogue*. Washington, D. C.: Author.
- Croft, L. J. (2003). Teachers of the gifted: Gifted teachers. In N. Colangelo & G. A. Davis (Eds.), *Handbook of gifted education*, Boston, MA: Pearson.
- Department for education of UK (2007). Qualified Teacher Status(QTS) standards guidance. Retrieved Oct 30, 2012, from Government of UK Web site: <http://www.education.gov.uk/schools/careers/traininganddevelopment/initial/b00205422/qtsanditt/qts-standards-guidance>.
- Karnes, F A., & Stephens, K. R. (2008). *Achieving excellence: Educating the gifted and talented*. Old Tappan, NJ: Pearson Education Inc.
- OECD (1998). *Staying ahead: In-service training and 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Paris: OECD.
- Shulman, L. S. (1986). Those Who Understand: Knowledge Growth in Teaching, *Educational Researcher*, 15(2), 4-5.
- Shulman, L. S. (1987). Knowledge and Teaching: Foundation of the New Reform, *Harvard Educational Review*. 57(1), 14-19.
- Vidergor, H. E., Eilam, E. B. (2012). Israeli teachers' perception of gifted teachers' desired characteristics: A case cultural orientation. *Roepers Review*, 34(1), 26-37.

= Abstract =

Development of Evaluation Criteria for Teachers in Music (Korean Traditional Music) Gifted Education

YoungSil Won

Korea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the Gifted in Arts

Eunkyung Kim

Soongsil University

The quality of gifted education depends on the quality of teachers in the field. Teachers in music (Korean traditional music) gifted education are significant variable in identifying students' giftedness and successful instru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desirable components of teachers in music (Korean traditional music) gifted education and develop the evaluation criteria based on the desirable components. Previous research on the components of good teachers, teachers in gifted education and teachers in music (Korean traditional music) gifted education were reviewed. Based on literature review, the evaluation criteria of teachers in music (Korean traditional music) gifted education was developed. To collect opinions and derive consensus of the evaluation criteria, this research used Delphi method with a panels of 25 experts. The evaluation criteria classified with 3 dimensions, 8 categories, and 18 variables as the result.

Key Words: Teacher in music gifted education, Teacher in Korean traditional music gifted education, Evaluation criteria

1차 원고접수: 2014년 3월 20일
수정원고접수: 2014년 4월 15일
최종게재결정: 2014년 4월 15일